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지원”

나주시·교육지원청 '2기슈퍼노바인재학교'

6개 중 3학년 94명...최근 입학식
교사 1인당 5명 짝 21개팀 구성돼
멘토링 등...“미래 교육 모델 핵심”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교육계가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나주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미래 융합 인재 육성에 팔을 걷어 붙였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나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6제2기 나주 슈퍼노바 인재학교' 입학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슈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은 최근 관내 6개 중학교 3학년 학생 94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2기 나주 슈퍼노바 인재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퍼노바 인재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해 거대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올해 제2기 과정에는 빛가람중, 나주금전중, 나주동강중 등 6개 중학교에서 총 9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학습 코칭 교사와 1인당 5명 이내로 짝을 이뤄 총 21개 팀을 구성해 밀착 지도를 받게 된다.

참여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으로 완성하는 나주형 미래 인재'라는 비전 아래 다채로운 교육 훈련을 소화한다.

학기 중 상시 학습 멘토링 및 성취도 상담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와 연계한 진로·학습 전략 코칭, 방학 중 집중형 점프업 캠프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 도입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 스스로 학습 태도를 형성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20일 열린 입학식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전문가인 한재우 강사가 특강에 나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역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학생들은 '슈퍼노바 크루(CREW)' 다짐 선언을 낭독하며 의지를 다졌고, 변정빈 교육장과 김혜경 인재학교장이 세무 과정을 안내하며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다.

강동렬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나주 슈퍼노바 인재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키우는 나주형 미래 교육 모델의 핵심”이라며 “지역사회와 대학,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다 함께 성장하는 튼튼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종환기자

‘IMF 1년전’ 외환위기 경고 장재식 前 산자부장관 별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환란을 경고했고, 김대중 정부 비상경제대책위원으로 참여한 3선 의원 출신 장재식(사진)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31일 전했다. 향년 91세.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의 집안은 큰아버지 장병준(임시정부 외무부장) 선생이나 부친 장병상 선생, 작은아버지 장홍염(광복군 전남지구대 참모장, 제헌 국회의원) 선생 등 집안 전체가 항일운동을 호 난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가문이다.

고인은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뒤 1966년 고등고시 행정과(7회)를 거쳐 국제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1973년 국제청 차장, 1979년 한국주택은행장, 1985-1989년 서울대 법대 강사를 거쳐 1992년 14대 국회에서 민주당 전국구로 금배지를 단 뒤 15, 16대는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에서 연이어 당선되는 등 내리 3선을 했다. 2001-2002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1992년 정치 입문 직후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됐을 만큼 DJ의 신임이 두터웠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이던 1996년 10월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율과 수출, 외채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엔저현상의 지속으로 원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되는 바람에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단기대책으로 금리 인하와 환율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주장은 물가상승과 기업의 환차손을 이유로 철저히 무시됐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1998년 1월 재경원 강만수 차관은 비상경제대책위에 참석, “반도체 특수에 눈이 멀어 환율평가시기를 놓쳤다. 상부에 환율을 자율 조정하자고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보고했다. 고인의 지적이 옳았음이 1년여가 지나, 그것도 모라토리엄(대외채무지불유예) 직전에 가시어 입증된 셈이다.

장남은 경제학자인 장하준 런던대 교수, 차남은 과학철학자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이고,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원 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조카들이다.

유족은 부인 최우숙씨와 2남1녀(장하준·장연희·장하석), 사위 이수빈(LKB평산 변호사), 며느리 김희정·그레첸 시글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일 오전 8시. (02-227-7500) /연합뉴스



여수상공회의소, 지역 섬·바다 정화활동 성료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ntrepreneurship Round Table·ERT) 지역챌린지의 일환으로 여수화정면 개도 일원에서 ‘여수지역 기업 섬·바다 플로깅’ 해양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오는 9월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깨끗한 섬·바다 환경 조성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여수상공회의소,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시, GS칼텍스, DL케미칼, 남해화학, 롯데

케미칼 등 27개 기관·기업·단체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페스티코폼, 페어구, 페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보전에 힘을 보탤고,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공동체 가치 실현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문선 회장은 “이번 ERT 지역챌린지가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여수상공회의소도 기업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김영록 지사, 동경호남향우회와 교류·협력 논의

전남도는 지난 29일 일본 친잔소 도쿄 호텔 연회장에서 동경호남향우회와 오찬간담회를 열고 재일 향우사회와의 교류·협력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신경호 동경호남향우회장, 정기욱 재일전남도민회장 등 재일 향우사회 주요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 지사가 재일 향우사회 발전과 전남도와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신경호 회장과 정기욱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동경호남향우회에서도 고향 발전과 국제교류 확대에 힘쓰는 김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상호협력의지를 다졌다.

동경호남향우회는 2002년 창립 이후 제일 호

남 향우들의 연대와 유대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결속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정기모임과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향우 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행사 등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는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향우들은 전남의 소중한 자산이자 민간 외교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일 향우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전남의 국제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동강대 간호학과 ‘제3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동강대 간호학과가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며 간호전문직업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예비 나이팅게일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31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간호학과는 지난 29일 분관 나이팅게일홀에서 2학년 98명을 대상으로 ‘제3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학과 2학년이 임상실습에 앞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봉사정신을 이어받아 예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선서식은 ▲선서생 보고 ▲축복의 의식 ▲나이팅게일 선서 ▲휘장 수여식에 이어 이민숙 총장 격려사, 지혜련 광주시간호협회 회장 축사, 간호학과 3학년 학생회장 축사 및 재학생 축하공



연 등으로 진행됐다. 동강대 간호학과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끝난 뒤 학과 발전을 위한 산업체 및 학부모 간담회를 마련했다.

교내 도서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광주·전남 지역 병원 간호부장과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취업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선옥기자

담양경찰, 스마트경로당 피싱범죄 예방 교육

담양경찰서가 관내 스마트경로당 영상 송출 시스템을 통해 노인 대상 피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31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환경 적응을 위해 담양군이 운영 중인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했다. 교육은 12개 읍·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피싱범죄 수사관이 실제 사례를 현장감 있게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종 범죄 수법 및 피해 사례, 예방법을 소개했다.

양수근 경찰서장은 “지역 내 고령층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담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장흥경찰, 귀갓길 안전 민·관 합동순찰

장흥경찰서는 “최근 학생들의 야간 귀갓길 안전을 확보하고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방범대, 교육청 관계자 등 30여명과 함께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관내 우범 지역과 공원,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경찰은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지속적인 합동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경호 경찰서장은 “지역 안전은 경찰의 노



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보성경찰, 학생 생활권 중심 민·경 합동 야간순찰

보성경찰서는 “최근 보성읍 학교 통학로와 학원가, 공원 등 학생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경 합동 야간 순찰을 전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순찰에는 신원수 보성경찰서장을 비롯해 보성읍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다항고등학교 부사관학과 학생 등 30여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지역사회와 민·경 협력체계가 촘촘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신원수 경찰서장은 “학생 안전은 학교와 가정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